

지역 소식통

김제 백구면 지사협
취약계층 삼계탕 나눔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강인)가 23일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특화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 행사는 연일 반복되는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집안에서만 보내는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협의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 추진됐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여 명이 손수 만든 삼계탕을 각 세대에 직접 전달하며 인부를 살폈다.

이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무더위로 지친 소외된 이웃을 생각해 위원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이웃을 살피는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교월동 지사협
삼계탕·반찬 나눔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종욱)가 23일 중풍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50세대에 삼계탕 및 밀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6월 중순에 아끼고 남은 삼계탕을 절이고, 지난 22일 위원들이 장아찌를 직접 만들어 밀반찬을 준비해 실시했다. 삼계탕 및 밀반찬을 위원들이 가정마다 손수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

조종욱 위원장은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이 더불어 행복한 교월동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진안 천연가스공급시설 시공업체들, 민원 무시하고 공사 '주민 공분'

주민·운전자, 안전 위협 심각



완주군 봉동읍 주공아파트 옆 작은 보행로 폭 약 2m 중 70cm~1m 구간에 다량의 장비유압호스, 끝이 뾰족한 쇠철판, 대형 오일통, 용도를 알 수 없는 저장성 탱크 등이 적치돼 있는 곳을 한 어르신이 걸어가고 있다.

완주~진안간 제1공구 천연가스공급시설 시공업체들의 막가파식 공사에 주민과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진안간 제1공구 천연가스공급시설 사업은 지난 2022년경 봉동~소양~진안과 연결되는 가스공급시설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고, 진흥기업(주)과 (주)정호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시공현장은 △공사 장기화 △공사구간 도로 곳곳 비포장 △좁은 인도 위험시설물 적치 △임시포장면 불규칙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 공사현장 도로를 오가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으나 시공사는 이러한 민원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취재 결과, 봉동 주공아파트 옆 작은 보행로 폭 약 2m 중 70cm~1m 구간에는 공사현장 산소가스통 위험물저장소, 다량의 장비유압호스, 끝이 뾰족한 쇠철판, 대형 오일통, 용도를 알 수 없는 저장성 탱크 등이 적치돼 있고, 오일통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또한 주공 큰 사거리 횡단보도 옆 신호 제어기는 공사장 가림막으로 인해 보이지도 않고,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된 것처럼 허부가 뜯겨져 있는 등 각종 위험물질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위험 시설물 있는 곳에는 나무와 나무사이에 빨간 선 2줄 또는 한 줄로 표시해 났을 뿐, 위험시설물에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면 주공 아파트 단지내까지 피해가 갈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폭발사고 방지에 대한 시설이나 안내가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어 찾은 응진하이트·신봉마을 구간 공사현장 임시포장도로 노면은 불탄 상태고, 곳곳이 비포장인 노면은 야간에 차량 등이 공사현장도로가 아닌 반대차선 도로를 타고 가다 반대편

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곡예운전을 하는 현상이 목격됐다.

심지어 응진 구억교차로 응진성당 인근 도로에서 공사현장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노면은 아주 불량이고, 비포장인 도로 노면 상태 또한 불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완주군은 봉동주공 아파트 보행로 공사시설물 적치를 공사기간 내내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임시포장 도로노면은 잘 돼 있는 줄 알았다"고만 답변해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운전자들이 떠맡는 꼴이 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나라꽃 무궁화 보러 완주 가자"

내달 10일 고산문화공원에서 무궁화축제 개막

무궁화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 완주군이 무더운 여름을 달래줄 제34회 나라꽃 무궁화 완주축제를 내달 10일 고산문화공원(무궁화테마식물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무궁화 완주축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식전공연과 다양한 축제 대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무궁화 지식도 얻고 푸짐한 경품 당첨의 행운도 잡을 수 있는 무궁화 풀든벨, 아름다운 무궁화를 가정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무궁화 나눠주기, 무궁화를 느낄 수 있는 무궁화 그림대회, 추억의 보물찾기, 장기자랑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장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180여 종의 무궁화 품종을 감상할 수 있고, 완주에서 생산한 무궁화 묘목 400여 본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부대행사로 어린이 무궁화 그림대회

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당일 현장 접수(12시까지)로 가능하다.

입상자들에게는 산림청장상(1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1점), 완주군수상(2점), 완주교육장상(2점)과 메달을 수여하고 입상작품들은 무궁화전시관에 전시가 된다.

축제 전담과 축제일에는 캠핑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축제 참여자는 고산자연휴양림 무료입장도 제공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시원한 물놀이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아 산림복지과장은 "나라꽃 무궁화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족과 함께 나라꽃 무궁화를 감상하고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냇전에서 물놀이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취업청년 정착수당 참여자 설문조사

참여율 96.4% '매우 만족'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취업청년 정착수당' 참여자 23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됐으며 취업청년 정착수당 지원 참여자 232명 중 139명이 참여(응답률 59%)했다. 시는 취업청년 정착수당 지원 만족도 조사 등 17문항을 정해 구급 폼 설문조사를 활용해 설문을 진행했다.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김제시 거주 청년(18세 이상~39세이하) 대상으로 최대 5년간 1,8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올해 5년차를 맞이해 첫 졸업자까지 포함된 설문조사로써 시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설문조사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 취업청년 정착수당(이하 정착수당) 참여자 중 96.4%가 시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함에 응답했으며, 90.7%가 김제시에 주소를 유지하는 데 정착수당이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취업청년 정착수당은 81.3%가 생활비로 활용했으며 11.5%는 저축에 재투자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착수당 지원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나 관내 기업의 낮은 급여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7.6%로 지역의 낮은 급여가 여전히 문제로 나타났다.

또, '취업청년 정착수당 지원이 종료된다면 거주지 이전 계획'에는 80.6%가 '아니요'라고 답했으며 19.4%는 '이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봉센터, 전문봉사단 양성 위한 '이혈 교육'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22일부터 26명의 교육생들과 전문봉사단 양성을 위한 '이혈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귀에 있는 160개의 혈 자리를 자극함으로써 자연치유력을

높여주는 요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전문봉사단인 '이혈봉사단'으로 발대해 적극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앞으로 이혈교육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봉사단을 조직하여 경로당 및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이혈요법 봉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접수 시작

내달 2일까지 신청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완주군의 모든 주민이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이 자체 양성한 아동권리교육강사 및 아동권리교육협의회가 기관·단체를 찾아 환경·성·학교폭력 예방·문화 다양성 등 9개 분야를 놀이, 역할극, 연극 등으로 아동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게 풀이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군에서 전액 부담해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8월 2일까지며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



는 교육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wanjucfo>)를 참고하거나 아동음부즈퍼슨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은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음부즈퍼슨사무소를 통해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